

중년기 가계의 은퇴후 경제적 노후준비결정요인 연구

- 부부취업상태를 중심으로 -

손 원(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김 순 미(충남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맞벌이가계, 남편취업가계, 주부취업가계, 그리고 부부비취업가계로 구분하여 중년기 가계의 은퇴 후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실태와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결정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첫째, 중년기 부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족관련 변수, 재정변수 등에 따라 중년기 가계의 부부취업상태별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중년기 가계의 취업상태별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결정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에서 조사한 제1차 여성가족패널(KLOWF)이며, 중년기 여성의 부부취업상태에 따라 맞벌이가계 1,976가구, 남편 취업 가계 786가구, 주부취업가계 162가구, 부부비취업가계 201가구를 합한 총 3,125가구를 표본으로 하였다. 연구문제에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주부연령, 주부교육연수, 주부건강상태, 가족관련 변수는 생활비관리 의사결정자, 총자녀수,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이었으며, 재정변수는 총소득액, 월평균 교육비, 금융자산액, 총부채액, 총자산액, 현재경제상태인식으로 구성하였다. SPSS프로그램(17.0)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 t검정, 분산분석 및 Logistic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후 경제적 노후준비를 부부취업상태별로 살펴 보면, 맞벌이가계와 남편취업가계에서 은퇴후 노후준비 비율은 각각 57.1%, 55.6%였고, 부인취업가계와 부부비취업가계의 은퇴후 노후준비 비율은 각각 27.8%, 29.4%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인취업가계와 부부비취업가계의 은퇴후 노후준비 비율이 맞벌이가계와 남편취업가계에 비해 심각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부취업상태별 은퇴 후 경제적 노후준비실태를 보면, 주부건강상태, 주부교육연수, 주택소유형태, 현재경제상태는 맞벌이가계, 주부취업가계, 남편취업가계, 부부비취업가계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고, 총자녀수는 맞벌이가계와 주부취업가계에서, 월평균총소득, 월평균교육비, 금융자산액은 맞벌이가계, 주부취업가계, 남편취업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년기 가계의 부부취업상태별 은퇴후 경제적 노후준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맞벌이가계에서는 주부연령, 총자녀수, 생활비관리 의사결정자, 거주지역, 주거상태, 월평균소득액, 금융자산액, 총자산액, 그리고 현재경제상태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부취업가계에서는 주부교육연수, 총교육비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 남편취업가계에서는 주부건강상태, 총교육비, 금융자산액, 현재경제상태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부부비취업가계에서는 생활비관리 의사결정자, 주택소유형태, 현재경제상태 등이 유의한 변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부부취업상태별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현재 경제상태, 금융자산액, 총월소득액인 점을 비추어 본다면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 관련정책수립에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가계와 남편취업가계에 대비해 주부취업가계와 부부비취업가계의 경제실태가 좋지 않은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취약한 중년기 여성의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심층적으로 필요하다.